

기독교 역사기록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규칙 연구*

A Study on Archival Description for Intergrated Management of Historical Record to Christianity

이 유 진 (Yu-Jin Lee)**

윤 은 하 (Eun-Ha Youn)***

목 차

- | | |
|---------------------|-----------------------------|
| 1. 서 론 | 4. 기독교 역사기록의 통합을 위한 기술규칙 개발 |
| 2. 기독교 역사기록 개념 및 특징 | 5. 결 론 |
| 3. 기독교 역사기록 현황 | |

<초 록>

기독교의 기록은 개별교회와 관련된 기록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 및 개인, 그 외 언론사에서 발간한 기독교 관련 기록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기독교 기록은 교회내·외의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관리방식 역시 상이하다. 다양한 관리방식 및 기록이 산재함으로 인한 열악한 접근성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기록의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는 기독교 역사기록 기술(記述)규칙을 개발하여 산재된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제 영구기록물 기술표준 ISAD(G)와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을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료관, 미국 북장로회 아카이브 기술규칙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기독교 역사기록물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독교 역사기록 기술규칙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기록, 기독교 역사기록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기술

<ABSTRACT>

Christian records are greatly diversified as they are scattered in various institutions inside and outside of the church, which include records of Christian organizations, individuals, and the media. Given this, their management methods also vary. Because of this diversification of methods,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access and make use of these records. This study aims to develop rules for the archival description of Christian historical records to provide a foundation that will allow users to have an integrated system where they can access all Christian record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including the church. For this purpose, the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and those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were compared, and from this comparison, features of each institution were identified. Using the features based on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and Christian historical records, the rules for the archival description of Christian historical records were developed.

Keywords: christian record, christian historical records, manuscript, collection description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6M3D7A1912703).

이 논문은 2016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dbwls3119@gmail.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 문화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eunhayoun@gmail.com) (교신저자)

■ 접수일: 2017년 1월 6일 ■ 최초심사일: 2017년 1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24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1-30, 2017.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1.001>>

1. 서론

기독교 역사기록은 교회 구성원들이 기독교의 역사 및 그들 신앙의 위인들에 관한 사실을 전달함으로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종교적 단일함과 정체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교회 및 기독교 단체의 활동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록학적으로 뿐 아니라 역사적 자료로 대단히 가치가 높다. 이에 기독교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한 역사 깊은 개별교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관리·보존해왔고 교회 역사책 발간과 함께 교회기록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기독교의 기록은 개별교회와 관련된 기록뿐만 아니라, 기독교 단체 및 개인, 그 외 언론사에서 발간한 기독교 관련 기록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기록은 교회내·외의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개별 교회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관련된 설립자 및 기타 관련 깊은 인물들의 기록을 소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기독교 단체 역시 설립자 및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던 기록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신문 및 일간지 등의 언론사 또한 기독교 관련 단체 및 개인의 활동에 관한 기록 및 사역자들이 투고한 기록들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위해 기록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장 기관 및 출처의 다양성으로 인해 현재 기독교 기록물은 각 기관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관리, 보존되어 왔다. 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의 기록물은 유물관리 의 방식

으로, 학교 및 도서관 등 일부 교육 기관에서는 도서 관리의 방식으로, 그리고 기록관에서는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듯 개별적 관리방식 및 기록이 산재함으로 인한 관리의 문제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기록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기록물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찾고자 하는 기록의 소재지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된 기독교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기독교 역사기록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독교 기록의 기술(記述)규칙을 개발하고자 한다.

1.1 선행연구

기독교 기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개별교회의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2004)은 교회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일반적 분석과 더불어 기록학적 관점에서 교회 조직 및 기록물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강순화(2003)와 허은정(2007), 최유택(2010)은 개별 교회의 기록관리 현황과 기록관 설치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정미(2005)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이에 기반하고 있는 교회의 조직과 업무기능, 그 결과로 생겨난 교회 기록을 신학적, 기록관리학적인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개별 교회 기록물의 분류방안에 대해 마원준(2004)은 호주의 DIRKS 매뉴얼과 ICA/IRMT 지침을 준용하였으며, 김명인(2015)은 파일링 구조에 따른 기능별 분류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별교회 기록이 아닌 기독교 기록에 대해 지역단위 기독교 기록을 연구한 송현강(2008)과 선교사 기록을 연구한 장윤금(2013)의 연구가 있다. 송현강은 기독교가 대전·충남의 지역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대전·충남 지역 기독교 기록물의 종류와 내용 조사 및 기록관리 실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록물을 선교기록물, 지역교회 회의기록물, 개별교회 기록물로 나누어 정리하고, 기록관리의 실태를 공문서 규정과 기록물의 생산과 종류로 나누어 점검한 후 지역교회 기록물 관리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장윤금(2013)은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선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및 연구자 조사를 통해 선교사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선교사 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까지 진행된 기독교 기록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개별교회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개별교회의 운영·관리를 위해 생산되는 기록, 즉 행정기록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130년의 역사를 지닌 기독교는 개별교회 및 박물관 및 기념관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기독교의 역사적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매뉴스크립트 기록은 수집을 기반으로 소장되는 기록물로, 소장처가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분산된 매뉴스크립트 기록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연구로 황선도(2014), 조혜경(2007)이 있다. 황선도(2014)는

한국근대사를 움직인 동력원이었던 ‘독립운동’의 기록을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여 통합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독립운동 기록의 개념 특징을 분석한 후 독립운동단체 중 하나인 홍사단을 사례로 각 기관의 기술항목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기록물기술표준과 독립운동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운동 기술요소와 규칙을 제안한 후 홍사단 기록에 적용시켰다. 조혜경(2007)은 일제시대 해외소재 한국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의 수집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집차원을 넘어 활용서비스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조혜경은 일제강점기 해외소재 한국관련 기록에 대한 컬렉션을 만들고 이를 기술하기 위한 여러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형 기관들이 수집기록물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초이론을 제공하였다.

기록물의 통합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교회기록물 같이 분산되어 있는 기록물일 경우, 관리와 활용적 측면에서 기록물의 기술(Description)적 측면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2 연구범위

기독교(基督教)라는 용어는 영어의 Christianity의 한자어 표기인 그리스도교에서 유래했다.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 혹은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로마 카톨릭 교회(Roman Catholic Church, 천주교), 동방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 성공회(Anglican Church), 개신교회(Protestant Church)를 모두 다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용어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독 개신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기독교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김철성, 2014).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주체가 되어 생산된 기록과 자료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기독교 기록은 직접적으로 기독교와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이 생산한 기록과 간접적으로 기독교관련 인물 및 사건에 관해 언론사에서 발행한 신문, 잡지 등의 기록 2가지로 구분된다. 직접기록에는 한국기독교교사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인 영구기록뿐만 아니라 개별 교회 및 기타기관(교단, 기독교단체 등)의 행정 기록인 현용·준현용 기록을 포괄한다. 행정기록은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생산된 기록으로 업무적 활용성을 지닌 기록이고, 영구기록은 업무적 가치는 사라졌지만, 정보적·증거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독교 시작(1874년~1985년)¹⁾ 시기의 정보적·증거적 가치를 지니는 기독교의 역사적인 영구기록(=이하 기독교 역사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2. 기독교 역사기록 개념 및 특징

2.1 기독교 역사기록 개념 및 범위

기독교 역사기록은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크게 출처별로 볼 때 기독교인 및 기독교 단체 생산기록과 외부 언론생산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기독교인이 생산한 기록은 개인

이나 단체의 활동의 증거로 후세를 위한 신앙적 유산으로 관리된다. 언론기관에서 기독교인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은 한국사회 내 기독교인의 위치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사라지거나 부족한 기독교인의 기록을 보완하는 증거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역사기록은 매뉴스크립트 기록으로서 박물관, 기념관, 미션스쿨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하여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모기관에서 생산한 행정기록을 관리하는 기관과 달리 매뉴스크립트 기록 즉 특정한 주제에 관한 기록물은 구체적인 범위설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자, 활동,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기독교 역사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2.1.1 생산자

기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출처'이다. 역사적인 교회 기록의 경우 매우 다양한 출처, 즉 생산자를 가지고 있다. 개별 교회의 목사, 장로, 일반 평신도로 이루어진 교회구성원,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 그 외 기독교 단체 및 언론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2.1.2 활동

기독교인의 모든 활동이 기독교 역사기록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특정 기독교인이 한국기독교교내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경우 그 인물의 생애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존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경우 주요

1) 지금으로부터 최소 30년 이상 된 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기록 보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독교인의 활동에 따라 보존기록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는 한국사회 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사회·문화적 근대화를 이루고자 앞장선 기관이다. 선교사들은 복음전도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기독교는 선교초기부터 의료, 교육, 봉사, 사회운동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각각의 활동들에 따라 여러 지역에 의료기관, 교육기관, 봉사기관 등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록이 생산되었다.

2.1.3 시간적 범위

특정 주제와 관련된 기록은 그 기록을 어느 시점부터 수집·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한국기독교 역사의 시작점은 선교사의 입장과 수용자의 입장 중 어떤 입장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김철성, 2014). 선교사의 입장은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으로, 최초의 선교사가 한국기독교 시작점이 된다. 수용자의 입장은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한국기독교 시작점을 설정하고자 한다. 한국인으로 복음을 최초로 접한 인물은 백홍준의 아버지이며 1874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매킨타이어와 존 로스를 만나 한문성경을 접했다. 1874년을 한국기독교 시작점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백홍준의 아버지가 확실한 기독교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기록은 기록관리의 불편 부당성²⁾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다.

2.1.4 공간적 범위

마지막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기록이 어떠한 국가, 지역의 기록을 포괄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기독교 역사기록은 국내의 기록뿐만 아니라, 파송선교사 국가 및 기독교인 이민국가 등 해외 기록도 포함된다. 국내에 파송된 선교기관은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 캐나다 선교회 등 한국의 선교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파송하였다. 각 국가의 선교기관은 파송선교사와 후원 및 선교보고 등을 통해 발생한 선교사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다. 일제시대 미국, 러시아, 연해주, 만주지방 등으로 이민을 간 기독교인들은 한인교회를 설립하거나 민족운동 등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및 단체 기록들을 수집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2 기독교 역사기록 종류 및 특징

2.2.1 기독교 역사기록의 종류

기독교 역사기록은 범위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만큼 생산되는 기록도 다양하다. 보통 특정 주제나 기관의 기록의 종류를 파악하고자 할 때 기록의 매체나 유형별(혹은 주제별)로 파악하곤 한다. 기독교 역사기록은 기록 매체별로 문서, 사진, 도서, 박물, 간행물, 마이크로필름 등이 있으며 기록 유형별로 일기, 보고서, 성경 및 각종 신앙서적, 신문기사, 회의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기록을 기록

2) 보존 기록의 내용이 어떤 사실에 부합하여 상대적 당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특성(기록학 용어사전)

〈표 1〉 기독교 역사기록의 생산자별 기록의 종류

기독교 역사기록 생산자		관련 주요기록물 종류
선교사	- 선교사 - 선교사 파송기관	- 선교사의 일생에 관한 각종 기록 - 선교사가 작성한 각종 서신, 일기, 보고서, 저서 등 - 선교사가 한국에서 활동한 사진 및 박물류 - 선교사파송기관이 선교사에게 보낸 서신 및 각종서류
개별 교회 ³⁾	- 사역자 - 평신도	- 개별교회 설립자 및 설립초기에 대한 기록 - 교회 소속 유명한 평신도 및 사역자에 관한 기록 - 회의록(당회록, 제직회록 등), 문서류(주보, 증명서 등) - 필사본(설교노트, 성경학교 노트), 사진류
기독교 교단	- 총회 - 노회	- 교단의 설립관련 주요인물에 대한 각종 기록 - 문서류(노회록, 총회록 등), 사진류 등
기독교 기관/단체	- 병원 및 학교 - 봉사·사회운동단체 - 기타 기독교청년단체	- 기관 및 단체 설립자에 대한 각종 기록 - 기독교인 및 단체가 활동하며 발생한 기록(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사회운동, 봉사 등) - 기독교 단체에 관한 각종 증거·정보적 기록
언론사	- 기독교신문·잡지사 - 일반 신문·잡지사	- 기독교계 신문 설립·운영에 관한 증거적·정보적 기록 - 기독교인이 작성하여 게시된 기사 및 글 - 기독교인 및 교회·단체 활동에 관한 기사

의 매체나 유형에 따라 상기한 범위 내의 기록을 구분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그 구분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기록의 출처, 즉 생산기관별로 생산된 주요 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2.2.2 기독교 역사기록의 특징

이러한 기독교 역사 기록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기록에 대해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그 기록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기록이 아카이브즈인가 매뉴스크립트인가에 따라 관리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록이 어디에 속해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성겸, 2005). 기독교 역사기록은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매뉴스크립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역사

기록의 일부 생산자는 자신들의 역사를 보존하고자 기록을 일부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자들도 자신들의 기록을 처음부터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각 기관의 기록들은 기관의 관련인물이나 가족 등에게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기관은 관련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기독교 역사기록은 매뉴스크립트 기록으로서 그와 관련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유영산, 2005; 김성겸, 2005). 첫째, 매뉴스크립트는 특정 주제나 활동, 지역과 관련된 기록물 일반을 포함하기에 개인, 단체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다.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기록은 다양한 관리방식에 의해 생산·관리되었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물리적으로 복잡한 질서양상을 보인다. 둘째, 기록물의 형태가 매우

3) 개별교회의 행정기록이 아닌 개별교회가 개별교회사 차원에서 기록을 수집·관리하는 기록이다.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매뉴스크립트는 기록물의 생산이력에 대한 문서화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법적·제도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산과정이 모두 문서화되어 있거나 전후백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이 일괄적으로 수집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집 기관 담당자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집된 기록들을 정리·기술하여 상호 연관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독교 역사기록은 매뉴스크립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록의 생산·관리적 측면에서 여타 기록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광범위한 기록

기독교 역사기록은 출처의 범위가 넓게는 해외기관에서 작게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처를 아우르고 있다. 해외의 기독교 역사기록은 선교사 및 선교기관, 기독교인 이민으로 발생한 기록 등 다양한 기록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독교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자 해외 방문하여 마이크로필름이나 영인본 형태로 기관에 수집한다. 또한 기독교 역사기록은 기독교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수집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장된 기록들은 다시 기관에 의해 수집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소장자 나름의 정리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기록들은 출처 나름의 기록물 생산이력, 소장이력, 보관이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진임, 2008).

2) 생산자의 다양한 활동

기독교 내에 속해있는 개인 및 단체는 하나

의 활동만 진행한 것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선교사 언더우드는 연희전문학교(현재 연세대학교), 정동교회(현재 새문안교회)를 설립하였고, 대한기독교서회 회장, 한국기독교 교육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언더우드의 다양한 활동상으로 인해 언더우드 관련 기록들은 연세대학교와 새문안교회 등에 소장되어 있다. 기독교 역사기록은 하나의 주제나 인물에 대해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다양하며, 이로 인한 관리적 측면에서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째,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기록으로 인해 하나의 주제나 인물에 관련된 기록을 통합적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관에서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소장할 수 없다. 이는 재정 및 관리적 측면의 열악함으로 할 수 없으며, 또한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기관과 기록수집상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장 기록의 정보 작성시 관련 기록과 소장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사라진 단체

한국기독교는 한국 사회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개인·단체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의 압박과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라진 단체들이 존재한다. 사라진 단체는 2가지의 경우로 존재한다. 첫째는 사라진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로 이 경우 단체의 이름이 변경되었다든지, 다른 단체와 통합이 된 경우이다. 현재 연세대학교는 1955년 연희대(언더우드학당→경신학교→연희전문학교→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세브란스병원

→ 세브란스의과대학)가 합쳐진 대학교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사라진 단체이다. 이 경우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어 활동한 독립운동 단체와 선교사 설립학교 중 재정적 문제나 기타문제로 폐쇄된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는 실제로 단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관련인사가 주체적으로 기록을 소장하고 있지 않은 이상 파악이 불가능하다.

첫 번째의 경우에서 소장된 기록을 이용자가 혼동 없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생산기관의 행정력을 상세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특히 통합된 단체의 경우 통합기관이 되기 전 생산된 기록이 어느 기관의 기록인지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의 경우 사라진 단체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기관인지에 관한 정확한 파악도 잘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체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관련 기록의 수집·관리 또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외적으로 독립운동 기록은 독립기념관 등의 기관을 통해 주체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나, 그 외에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를 위해 사라진 중요 단체의 기록 또한 수집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기독교 역사기록 현황

3.1 기독교 역사기록의 운영 및 소장주체

미국 시카고의 교회 아카이브에 대해 연구한

어거스트(Suelflow, August R)는 전통적인 교회 아카이브 운영주체를 크게 4개의 축으로 구분하였다. August에 따르면, 먼저 개별교회 행정담당자⁴⁾로 교회 행정기록물의 생산자임과 동시에 보관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교회가 정식으로 기록관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교회의 중요기록물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교회기록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게 됨에 따라 교회기록은 한 곳에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되었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교회의 기록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부족한 기록을 수집하는 교회들은 교회 주보지의 광고란이나 홈페이지에 교회기록수집 공고를 올린다.

두 번째로 일반 수집가 및 연구가이다. 분산된 기독교 역사기록들은 개인적 연구 및 가문의 필요성 등에 의해 수집된다. 이런 수집기록물은 특정 주제 내지 사안에 관련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인적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를 위해 특정 지역이나 사람 및 단체 혹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연구하는 경우 그에 관련된 기록을 수집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한다. 가문의 필요에 의한 수집은 가문이 대를 이어 목사를 하는 경우로 관련 교회 및 전대 목사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게 된다. 일반 수집가는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나, 드물게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고자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특정 주제를 막론하고 가치 있는 기독교 역사기록을 수집한다.

세 번째로 종교역사협회(Religious Historical

4) 개별교회의 행정담당자는 대형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개별교회는 매우 다양한 분과(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등)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대표자가 존재하지만, 기록관리에 대해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최근 들어서 그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된 기록들은 교회구성원 각각의 집구석에 있거나,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Society)는 각 교단에 의해 종교역사협회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각 교단과 관련된 중요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의 재정적 지원이 불충분함으로 인해 수집되는 기록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일부 기록물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교단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지도층의 교체 및 사후에는 기록물 수집이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수집된 기록의 운영 및 관리 역시 재정 및 인력의 부족으로 보존에 급급한 경우가 태반이다.

네 번째, 신학대학도서관은 기독교 역사 기록을 수집, 정리, 보존하여 소속 대학원 교수, 학생, 기타 연구자들을 위해 학술연구와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수집된 기록물은 도서관의 도서자료에 부속되어 관리된다. 하지만 신학대학원 교수의 연구적 관심에 바탕을 두고 수집된 중요 기록물을 상당수 보존하고 있다.

한국기독교는 어거스트의 4가지의 운영주체 이외에 한국기독교의 상황에 맞추어 2가지 운영주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교사들이 세운 기관으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타 단체 및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기독교는 미국 등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가 전해졌다.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당시 한국 내에 필요한 기관들을 설립·운영하였다. 설립된 기관들은 일부는 사라지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였지만, 많은 기관들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존속되고 있는 기관들은 각 기관의 설립역사 자체가 기독교 역사기록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관련된 기록을 수집·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 타기관에 기록을 기증 및 판매, 위탁한다.⁵⁾

두 번째로, 미국 교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 기독교 역사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들 주체들은 기독교 역사기록 운영 주체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기독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치적, 역사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기타 사회운동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 등의 교육 및 연구 기관에 기독교 역사기록이 상당량 소장되어 있다.

3.2 기독교 역사기록 관리기관 현황

관리기관 현황파악을 위해 기독교 관련 기관과 기독교 관련 외 기관 2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영 주체 중 한국 기독교 역사 협회라 할 수 있으며 한국기독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역사 기록을 수집해 연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를, 또한 선교사들이 설립한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기록관을 선정, 분석하였다. 기독교 관련 외 기관으로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메뉴스크립 기록관으로 소장기록의 관리를 위해 ISAD(G)를 사용 중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이하 민주화사업회)를 참고하였다. 민주화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기록을 수집·관리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민주화관련 개인 및 단체의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 기독교 단체

5)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도 기록관리 및 보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록을 전문적으로 보존하는 기관에 위탁 및 기증하고 있다.

의 기록들이 민주화사업회에 다량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⁶⁾

3.2.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이하 기독교연구소)는 1982년 9월 한국기독교사 연구를 촉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로 조직되었던 한국기독교사연구회에서 시작했다. 기독교연구소의 목적은 한국교회 및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역사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여, 기독교문화의 창달과 선교에 기여하는 것이다. 기독교연구소는 연구적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소의 기독교 역사 기록은 단행본 포함해서 약 4만5천 건이 소장되어 관리되고 있다. 모든 소장 자료는 홈페이지 내 자료실의 자료검색 항목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키워드 검색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제별, 인물이나 사건별로 검색할 수 없다. 또한 기증자 및 생산자에 따른 기증자별, 출처별 검색도 불가능하다.

- NCKK 문서 정리사업

기독교연구소는 수집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의 분류방식에 따라 분류하여 소장된 자료의 정보 역시 서지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이하 NCKK) 문서(총 177박스 분량)를 대량이관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정리·분류를 고안하여 정리하였다(이순자,

2011). 기독교연구소는 이관한 문서를 정리하기 전에 국사편찬위원회와 민주화사업회 사료 목록 등을 참고하여 NCKK자료 정리 작업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정리 첫 단계로, 수집된 문서의 전체적인 규모 파악과 내용 분류를 위해 문서의 대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문서의 대부분이 7-80년대 자료이기에 당시 NCKK 조직 및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총 22개 항목을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대분류 작업 후 각 위원회를 자료유형별(발췌문, 발표문, 보고서, 회의록 등)로 분류하였다. 그 후 자료번호 지정 및 입력작업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자료 수장 및 열람 작업으로 대분류번호, 자료유형, 자료번호순으로 파일을 복사하여 열람자를 위해 수장작업과 추후 웹서비스를 위한 PDF파일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된 문건 수는 2011년 인권위원회(11,255건), 통일위원회(7,345건), 교회와사회위원회(2,139건) 등 약 20,739건이다. 이는 전체분량(177Box) 중 총 21박스(약 12%)이며, 인터뷰 결과 현재까지도 약 20%의 정도만이 정리되었다. 이는 사업지원 재정의 부족, 공간의 협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은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 협의회 보고서에 관한 기록이며, 관련 정보가 서지정보로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한 서지정보로는 보고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과 범위 등과 같은 정보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소가 정리한 NCKK 문서는 약 20,739건이지만 홈페이지 내에 NCKK를 검색하면 단 31건 밖에 검색되지 않는다. 검색

6) 일례로 대표적 기독교 단체인 YMCA는 보관했던 사료들을 2006년 민주화사업회에 기증하였는데, 그 수량이 보존상자로 약 2천여 개, 약 8만 건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http://www.ymcakorea.org/?document_srl=46582)

서지정보

표제/저작사항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의회 보고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위원회 , 1985
형태사항	96p. ; 21cm
주기사항	(주제: 이땅에 평화를 / 일시: 1985.11.4-5 /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분류기호	한국신자분류법->231.93
키워드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의회 보고서 평신도지도자협의회 NCC자료집 KNCC NCCK 평신도운동 교회연합운동 이땅에 평화를

소장정보

청구기호	등록번호	날권정보	가격	매제구분
231.93-한155 =	EM0000022098		0	인쇄자료(책자형)

〈그림 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NCKK 문서 정보

된 31건 중에서 기증받은 자료의 'NCKK DB목록'이나 '자료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DB 목록'에 관한 서지정보에는 NCKK 기록이 언제 생산된 기록들이고, 또한 각 위원회 별로 기록의 수량 같은 NCKK기록에 대한 (이미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략적인 정보도 파악할 수 없었다.

3.2.2 연세대

연세대는 1885년 4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었던 '광혜원(=제중원)'에서 시작되었다. 제중원을 설립한 알렌을 언더우드가 도우면서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시작하였다. 제중원을 터전으로 한 의료·교육사업이 오늘날 연세대의 뿌리가 되었다. 연세대는 선교사가 설립한 미션스쿨로서 연세대 역사자체가 기독교 역사 기록이다. 연세대는 도서관과 박물관 2곳에서 기독교 역사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1) 연세대 도서관

연세대 도서관은 연희전문학교의 창설과 더

불어 종로 중앙청년기독교회관에서 초대 교장인 언더우드(H.G.Underwood)가 기증한 230여권의 도서로 시작하였다. 연세대 도서관 5층 국학자료실 및 고문헌 서고에는 기타 고서와 함께 기독교 역사기록도 소장되어있으나, 기독교 역사기록만의 수량 및 전체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 연세대 도서관 홈페이지의 '연세 디지털 컬렉션'에는 열람이 어려운 고서·고문헌이나 학위논문 등의 원문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컬렉션에는 2004년 역사자료정보화사업 구축을 통해 기독교 역사자료도 서비스되고 있다.

기독교 고잡지의 경우, 컬렉션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관련 기독교 잡지를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아도 단 1건도 검색되지 않는다. 다른 컬렉션의 경우, 컬렉션을 클릭하면, 전체 건수가 조회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컬렉션도 도서관의 소장자료이기 때문에 서지정보의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다.

〈표 2〉 연세대 도서관 기독교 관련 기록

기록	내용	수량	자료유형
기독교 고문헌	개화기에서 한국 전쟁이전에 간행된 초기 성경자료와 찬송가, 선교사들의 연차보고서 등 한국 초기기독교 관련 단행본	166건	단행본: 162 악보: 4
기독교 고잡지	개화기에서 한국전쟁 이전에 간행된 기독교 관련 고잡지로, 국내 기독교 단체에서 간행한 잡지와 선교사들이 구독하던 해외 선교잡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음	검색 안됨	-
연세 춘추 ⁷⁾	1953년 이전~2014년 연세춘추는 대학언론의 효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매우 귀중한 사료	1,035건 ⁸⁾	정기 간행물

2) 연세대 기록보존소

연세대 기록관리는 1998년 연세대의 학문적 업적과 교육적 성과를 밝혀줄 모든 기록 정보를 수집·정리·보존하여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2001년 박물관이 소장한 학교사 기록을 이전하며 ‘학교사전시실’ 및 ‘연세사료관’을 개관하였다. 연세대 기록보존소는 행정기록인 교내 기록정보와 학교사 기록을 수집·소장하고 있다. 학교사 기록 중 1957년(연세대학교 출범) 이전의 역사기록과 학교설립과 관련된 주요인사에 관한 수집기록은 기독교 역사기록으로 볼 수 있다.

- 기록관리 현황

연세대 기록보존소 규정 시행규칙(2005.12.16.)의 제2장 제6조에는 기록정보의 목록 및 주제 색인 작성에 관한 조항이 있다. 1항에 따르면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직·검색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기록정보의 목록과 주제 색인을 작성해야 한다. 2항은 생산된 목록 및 색인정보에 관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각 기록유형별로 소장기록 목록을 철단위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기록에 가장 근접한 ‘역사기록’에 대한 소장목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기록은 ‘역사기록 해방이전’, ‘역사기록 해방이후’, ‘역사기록 부산분교’로 구분하여 목록화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목록화된 역사기록은 매체별로 문서가 37건, 간행물 20건, 시청각 18건, 행사자료가 1건으로 총 76건의 기록물철이 엑셀파일로 목록화 되어 있다. 역사기록 소장량(기록물 철단위로 181철)에 대비해 목록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목록은 통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기록 정보를 파악하기에 기록정보 요소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3.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료관(이하 민주화사료관)은 민주화운동의 기록과 기억을 수집·정리·보존하여 민주화운동 역사 기본정보와 활적은

7) 1935년 창간한 연전타임즈를 모태로, 1953년 6월 15일 연희춘추로 재창간 후, 57년 연세춘추로 개명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8) 1953년 이전에 발간한 3건과 1953~1985년에 발간한 1,032건으로 총 1,035건이다.

역사기록 해방이전				
관리번호	기록물 철번호	제 목	생산기관	생산연도
1	HOH1001	졸업앨범(세브란스연합의학교), 1917	연희전문학교	1917
2	HOH1002	졸업앨범, 1919	연희전문학교	1919

역사기록 해방이후				
관리번호	기록물 철번호	기록물 설명	생산연도	문건 수
33	H2A2001	해방 이후 행사 관련철	1936-1957	14

역사기록 부산분교				
관리번호	기록물 철번호	제 목	생산기관	생산연도
15	HLA3001	절영, no 6, no 9, no 25	연세대 학교 부산분교	1958- 1960

〈그림 2〉 연세대 기록보존소 역사기록 목록

〈표 3〉 '2002년도 민주화운동사료목록집'의 개인수집자료

수집일	기증자	수집자료	분량
2002.10	고영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50년간 선교활동의 발자취)	파일 1박스
2002.10	박용길	고난주간 연합예배 (주보)	4
		한국 교회 산업선교 25주년 기념대회 보고서	101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열람·활용하여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후세에 전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기독교 관련 단체⁹⁾나 개인에게 기증받거나 위탁·구매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기증한 문건들 중 기독교와 관련 있는 인물(사역자, 평신도, 기독교단체 활동가 등)이 기증한 사료 일부가 기독교 역사기록에 속해 있다. '2002년도 민주화운동사료목록집'에 기재된 수집목록

에서 개인이 기증한 것 중 기독교 역사기록과 관계된 사료라 판단한 일부를 소개한다.

이처럼 민주화사료관에 소장하고 있는 기독교 역사기록물은 민주화운동관련 사료도 있으나, 단순한 기독교 역사기록도 소장¹⁰⁾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독교 단체에서 수집된 기록들의 경우 단체의 행정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문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독교단체가 민주화운동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기독교단체가 민주화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단체가 민주화운동만을 위해 설립된 단체는 극

9) 기독교 단체별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82,362건), 전국YMCA전국연맹(43,163건), 한국교회여성연합회(9,752건),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1건), 청주도시산업선교회(12,029건), 인천도시산업선교회(7,543건), 서울제일교회(100건), 성남주민교회(377건),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1,112건) 등의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
 10) 기독교 단체의 행정문서와 개인이 기증한 기독교 기록을 포함하여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뿐, 기독교 역사 기록의 전체 소장량은 정확한 수량 파악이 어렵다.

히 드물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화운동이 설립목적인 기독교 단체가 있다면 행정문서까지 전부 민주화운동기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와 관련성이 적은 기록들은 분류평가기준표에 의해 4-5등급으로 매겨진다.¹¹⁾ 5등급 이하의 관련성이 희박하거나 중복본으로 평가되는 기록들은 폐기지침에 의해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민주화사료관의 기록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만약 폐기기록 중 기독교 관련 기록이 있다면 기독교 역사적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은 아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폐기할 기록 중 기독교 관련 기록이라면 기증자 및 기독교 역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반환 및 기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 기록관리 현황

민주화사료관은 기독교 기록뿐만 아니라 사료관의 모든 자료들은 선별정리·평가 등을 거쳐 관리시스템인 사료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민주화 사료관에서는 초창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의 기록들의 분류체계를 인권, 노동, 청년, 환경 등 18개 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는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것이고, 현재는 기증자를 사료군으로 하고, 하위단위로 시리즈와 파일, 아이템 순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들은 민주화운동 오픈아카이브에 원문서비스, 콘텐츠로 서비스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에는 검색뿐만 아니라 자료컬렉션도 서비스하고 있다. 자료컬렉션은 주요민주화운동(4.19혁명, 부마항쟁 등)과 연대별로 분류하여 시대마다

발생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컬렉션이 서비스 되고 있다. 그러나 출처(or 기증자)별로 묶어놓은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생산자나 기증자 기록을 보려면 직접 검색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사료관에 소장된 기독교 역사기록을 찾으려면, 생산자나 기증자 명을 정확히 알고 검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는 민주화사료관에 어떠한 기독교 단체·개인의 기록이 소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컬렉션 자체도 민주화사료관이 기독교 관련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관련 단체 및 주제에 대한 컬렉션을 따로 서비스 되지 않는다. 민주화 사건 중 일부(남산부활절연합예배사건, YWCA 위장결혼식사건 등)는 기독교 기록과 관련이 있지만, 이 역시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기독교 단체의 소장기록 중 기독교 관련 주요사건으로 엮어 컬렉션으로 만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 관련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당연하다 여겨지지만, 소장된 기독교 역사기록 중에서 민주화와 관련된 기록이 다량 존재하고, 이 역시 서비스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단체별로 진행한 민주화운동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3 시사점

〈표 4〉는 3기관의 기독교 역사기록의 소장량, 목록, 검색 및 원문서비스, 기술 및 기타사항에 대해 비교한 표이다. 기독교 관련 기관의 경우, 그나마 관리가 잘되고 있는 2기관으로 선

11) 민주화 사료관에서는 기록들을 분류평가기준표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등급을 구분해 놓았다. 4-5등급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기록들이다.

〈표 4〉 기독교 역사기록 관리기관 현황

	기독교연구소	연세대	민주화사료관
소장량	- 약 45,000건	- 역사기록: 7,114건(2009년 기준) - 기타기록은 학교사 기록과 혼동되어 알 수 없음	- 기독교 단체 기록: 156,439건 - 개인 기증한 기록 중에서 파악 안 됨
목록	- 홈페이지에 전체 목록 확인불가	- 홈페이지에 목록제공 - 전체량 대비 목록화 된 건수 부족, 통일 되지 않은 목록	- 기독교 역사기록만 따로 된 목록X
검색/원문	- 검색기능(원문X)	- 도서관-검색기능(원문보기 가능) - 기록관-검색불가(원문보기 불가)	- 검색기능(일부 원문보기 가능)
기술	- 서지정보	- 도서관-서지정보 - 기록관-자체목록 정보	- ISAD(G) 기반
기타	- 일부 기증자 및 출처별 목록집 출판	- 기록관-기록관리 규정 존재(기록보존소 규정, 시행규칙, 정보공개규정, 문서보관규정 등)	- 한국YMCA 및 기타 기증한 기관이 원하면 목록집 혹은 DB제공

정하였다. 상기한 2기관 역시 기록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타 기독교 관리기관은 기록의 목록은커녕, 소장량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 관련 외 기관인 민주화사료관의 경우, 기록관리의 대표적인 매뉴스크립트 기관인 만큼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기록은 민주화운동기록의 일부로만 여겨질 뿐, 따로 기독교 역사기록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기독교 역사기록은 조사한 3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산재되어 있으며, 다양한 관리방식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기독교 역사기록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관심있는 기독교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각 기관에서 기독교 역사기록을 관리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여 남기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¹²⁾ 후세에 알린다는 것은 곧 이용자들이 기독교 역사기록을 연구 및 이용하여 자신들이 알고자 하는 역사에 대해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이용자를 위한 기록서비스이다. 기록서비스는 단순히 소장 자료의 열람뿐만 아니라 기관의 소장 기록의 종류, 수량, 목록, 검색서비스, 생산자별 목록, 소장 기록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록서비스는 기관의 소장 기록의 정리를 통해 가능하다.¹³⁾ 그러나 대부분의 관리기관들은 재정, 인력의 문제로 소장된 기록의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다. 이는 각 기관들마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기독교 역사기록을 통합

12) 인간의 역사 활동이 기록과 문화재로 남지 않으면 망각되어 후손들은 그것을 알 수 없다. 구약성경도 상당부분이 역사기록으로 이를 통해 우리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 기독교의 활동들을 기록물로 잘 보존해야 한다(안양대 이은선 교수).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003>)

13) 정리와 기술의 목표는 기록물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데이비드 W. 카마이클)

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기독교 기록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기독교 관계자들은 기록의 목록화를 제안하였다. 한국기독교 문화재 및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한국기독교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15년 6월 제1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기독교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기록과 목록화'가 제안되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단국대 김정신 교수는 교회의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기록과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분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¹⁴⁾

소장기록의 목록을 제공해야만 특정 기관의 소장기록과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목록에는 기록의 제목 뿐 아니라 기록의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용자는 목록을 보고 소장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기록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록의 기술(記述)이다. 기술이란 이용자에게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으로써, 기록과 생산자 간의 정보를 만들거나 모으고, 그 정보를 지적·행정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김성겸, 2005). 기록에 있어서 기술은 낱장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는 도구이다. <표 5>는 국제 보존기록 기술 규칙(ISAD(G))을 기준으로 기독교역사연구소, 연세대, 민주화사료관의 기술을 비교한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도서관은 그대로 기입하고, 기록관은 괄호 안에 기입하여 구분하였다.

기록관리 기관인 민주화사료관을 제외하고, 2기관은 기록정보는 거의 식별영역 즉 서지정보 수준에서만 기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기관 모두 기독교 역사기록을 소장한 기관으로서, 기독교 관련 단행본뿐만 아니라 보고서, 회의록 등과 같은 기록물들도 존재한다. 도서와 기록은 생산된 목적과 주제, 접근성, 자기 설명성, 정보이용 방법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데이비드 W. 카마이클, 2015). 이러한 기록물과 도서류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르게 기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 연구자들의 이용서비스를 위해 구축해 놓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서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앞서 관련 주제에 대해 검색한다. 만약 기관이 기록정보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다면 연구자들은 기록의 연구적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원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역사기록의 연구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관리기관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정보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14) "교회의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기록과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되고 개방되어야 한다."면서 기록의 합리적인 분류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교회에서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집된 유산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수집하기 위해 문화재 관련 기관 및 일반 박물관과 연계될 수 있는 분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003>)

〈표 5〉 ISAD(G)와 각 기관의 기술요소 비교

ISAD(G)		기독교연구소	연세대	민주화 사료관
영역구분				
식별 영역	참조코드	청구기호, 등록번호	(관리번호) 청구기호	동일한 명칭
	표제	표제	(제목) 서명, 원서명	동일한 명칭
	일자	발행사항	(생산연도) 발행사항	생산일자
	기술계층	-	-	동일한 명칭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형태사항, 날권정보 매체구분, 가격	(문건 수) 자료유형, 형태사항 매체정보	동일한 명칭
배경 영역	생산자명	저작사항	(생산기관) 저자사항, 개인저자	동일한 명칭
	행정연혁/개인이력	-	-	
	기록물 이력			
	수집/이관의 직접적 출처			
내용과 구조영역		-	-	동일한 명칭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	언어	동일한 명칭
연관자료 영역		-	소장정보	동일한 명칭
주기영역		주기사항	-	동일한 명칭
기술통제 영역		-	-	동일한 명칭

4. 기독교 역사기록의 통합을 위한 기술규칙 개발

4.1 기록 관리기관의 기술비교

4.1.1 기록 관리기관의 기술 및 소개

기독교 역사기록의 기술규칙을 연구하기 위해 기록관리 기관의 기술규칙을 비교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비교할 기관은 국가기록원과 민주화사료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기록이 소장된 미국 북장로회 아카이브를 선정하였다.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은 해외의

보존기록 기술규칙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한 기술규칙이다. 영구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기술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국가기록원, 2013). 민주화사료관은 ISAD(G)를 기반으로 하여 그 외에 환경정보 같은 내부관리 요소를 추가하여 기술하고 있다.

미국 북장로회의 기록관은 1880년대부터 파송된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 및 그와 관련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미국 북장로회 아카이브는 이용자를 위한 검색도구¹⁵⁾를 온라인 카탈로그, 연구도구, 디지털 컬렉션 3가지 측면

15) 이용자가 기록을 이용할 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검색도구이며, 검색도구의 대표적인 예가 아카이브즈 기술(description)이다(김보인, 2008).

에서 제공한다. 온라인 카탈로그에는 society's electronic catalog인 칼빈(CALVIN)과 각종 색인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칼빈은 현재 북장로회 아카이브에서 보존하고 있는 75,000개의 책과 정기간행물 및 아카이브 컬렉션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색인파일은 전기(biography)와 외국인 선교사, 교회 및 기타 조직에 관한 Index DB(Database Index)를 검색할 수 있다.

연구 도구는 카탈로그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기록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도구의 검색도구관련 항목은 아카이브 컬렉션 가이드, 미국 북장로회 교회 색인, 주제 가이드가 있다. 아카이브 컬렉션 가이드는 북장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카이브 컬렉션에 대한 목록과 그에 관한 기록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미국 북장로회 교회 색인은 교단에 속해있는 교회의 이름과 위치 등 간략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주제가이드는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

디지털 컬렉션은 디지털 컬렉션 저장소인 PEARL과 웹 아카이브를 검색할 수 있다. PEARL은 소장된 컬렉션 중 사진, 편지, 음성 녹음 등과 같은 디지털화된 개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¹⁶⁾ 웹 아카이브는 Archive-It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장로교 관련 웹사이트를 다양한 간격으로 수집하고 있다. 상기한 검색 도구 중 소장된 기록의 정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카탈로그인 칼빈과 아카이브 컬렉션 가이드, 디지

털 컬렉션인 PEARL 3가지이다. 칼빈은 소장하고 있는 책과 아카이브 컬렉션에 관한 전반적인 목록을 제공하고 있을 뿐, 기술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PEARL은 디지털화된 기록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소장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록이 아닌 일부 디지털화 기록에 해당한다. 아카이브 컬렉션 가이드는 출처 및 주제별 기록목록과 함께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술하고 있어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1.2 각 기관의 기술요소 비교분석

〈표 6〉은 3기관의 기술요소를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에 맞추어 비교한 표이다.

ISAD(G)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보완된 민주화사료관의 기술적 특징은 메뉴스크립트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메뉴스크립트는 기록수집 주체가 다양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기관이 아닌 제3의 출처에서 광범위하게 수집되기 때문에, 수집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기관이 기관을 운영하며 생산한 행정기록에 대비하여 기록매체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기록의 경우, 대부분의 기록매체가 문서류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현재는 전자기록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메뉴스크립트는 그 자체가 역사적 기록물로서 매우 다양한 매체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기록매체에 따른 매체별 특징과 보존상태, 보수정보 등을 기입할 수 있는 항목을 두었다.

16) PEARL로 'Korea'를 검색하면 총 378건의 기록물이 원문으로 서비스되고 있다(17. 1. 현재).

〈표 6〉 기록 관리기관의 기술요소 비교

	영구기록물 기술	민주화사료관	미국 북장로회 아카이브	
유사 항목	식별	참조코드	참조코드	Call Number
		제목	표제	Title
		일자	생산일자	Inclusive Dates Bulk Dates
		기술계층	기술계층	-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Quantity
	배경	생산자명	생산자명	Creator(s)
		행정연혁/개인이력	행정연혁/개인이력	Biographical Note/ Administrative History
		기록물 이력	기록물 이력	-
		수집/이관의 직접적 출처	수집/이관의 직접적 출처	Acquisition Information
		-	집중정보 수집개요	-
	내용과 구조	범위와 내용	범위와 내용	Collection Overview
		평가, 폐기, 처리일정정보	평가 정보, 폐기, 처리일정 정보	-
		추가수집 예상기록물	추가	-
		정리체계	정리체계	Organization and Arrangement
		색인어	-	Preferred Citation
	접근과 이용 환경	접근환경	열람조건	Restrictions on Access
		이용환경	재생산조건	-
		자료의 언어	언어와 문자	Language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조건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
		검색도구	검색도구	-
	-	주제어, 사료매체 색상, 크기, 재질 분할기준, 재생기간	-	
	관련 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원본의 존재와 위치	Repository
		사본의 존재와 위치	사본의 존재와 위치	Alternative Formats
		관련기술단위	삭 제	Related Material
		출판물 설명	삭 제	-
	추가설명	추가설명	주기	-
	기술 통제	기술담당자	아키비스트 주기	Processing Information
규칙과 협약		규칙과 협약		
기술일자		기술 일자		
보존	-	보존상태, 보수정보 소장위치, 구상자번호 업무주기	-	
컬렉션	-	-	Catalog Headings Collection Inventory	
	기술 특징	매뉴스크립트 특성 반영	컬렉션 수준의 기술	

미국 북장로회 아카이브는 국가기록원 및 민주회사료관의 기술과 다르게 개별기록 건 단위가 아닌 컬렉션 수준의 기술을 시행한다. 컬렉션은 어떤 개인 및 단체가 기증한 소장자료 또는 소장자료 내의 특정 기록물군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셀렌버그는 제한된 용어로서 매뉴스크립트 큐레이터가 수집가로부터 수집한 자료라는 의미로서 컬렉션을 정의한다(전명혁, 2003).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기술요소는 유사한 항목이지만,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생산일, 기술계층, 범위와 내용, 원본·사본의 존재와 위치가 이에 해당한다. 생산일은 컬렉션기술에서 Inclusive Dates(생산시기), Bulk Dates(주요 생산시기)로 표현된다. 생산시기는 컬렉션 내의 기록의 전체적인 생산시기를 말하며, 주요 생산시기는 다수 기록이 집중적으로 생산된 시기를 말한다. 기술계층은 기술단위를 기술하는 부분이지만, 컬렉션 기술에서는 하나의 덩어리 즉 기록집합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Organization and Arrangement(정리와 조직)에 컬렉션 기술수준 확인이 가능하다. 범위와 내용은 기술단위에 따라 기록의 내용, 유형 등에 관한 정보로 컬렉션에서는 Collection Overview(컬렉션 개요)로 표현된다. 컬렉션 개요는 컬렉션 하위에 있는 시리즈별로 관련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원본·사본의 존재와 위치는 Repository(기록 소장지), Alternative Format(대체 포맷)으로 표현된다. 대체 포맷요소는 기록이 마이크로필름과 같은 포맷으로 변환되

어 이용할 수 있는 기록물을 기술하고 있다.

건별 기술에는 없는 컬렉션 기술에만 존재하는 기술요소는 Catalog Headings(카탈로그 제목), Collection Inventory(컬렉션 사전)가 있다. 카탈로그 제목은 전자 카탈로그인 칼빈에서 컬렉션을 설명할시 사용되어지는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컬렉션 사전은 컬렉션 내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시리즈, 박스, 폴더, 제목 및 생산일의 순으로 목록화 되어 있다.¹⁷⁾

상기한 비교를 통해 매뉴스크립트 기관에서는 매뉴스크립트 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록의 기술요소를 추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수집에 관한 사항은 매뉴스크립트의 주요 기반중 하나이므로 수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역사기록의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북장로회 아카이브는 출처 및 주제별로 컬렉션을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기록의 활용도를 높였다. 컬렉션 기술은 매뉴스크립트 특징을 지닌 기독교 역사기록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재정 및 인력이 부족한 기관의 경우, 개별 건 수준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컬렉션 기술이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록은 폭넓은 기술계층 없이 상세한 수준부터 기술될 수 없다. 일부 중요한 기록 아이템들은 아이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¹⁸⁾ 그러나 기록 건 수준에서만 기술하는 것은 배경 및 출처에 관한 정보 파악능력이 없는 이용자들의 접근을 방해한다(조혜경, 2008). 이상과 같이 기록관리 기관의 기술요소 비교를 통해 기독교 역사기록의 기술에 관한 방법을 추출하였다.

17) 하나의 컬렉션은 그 자체로 목록(Catalogue)을 지니고 있다(김보인, 2008).

18) 이것 또한 더 넓은 차원의 기록 그룹의 배경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조혜경, 2008). 미국 북장로회 아카이브의 경우 컬렉션 기술과 더불어 일부 기록에 대해 원문서비스와 함께 건별 기록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4.2 기독교 역사기록의 기술

4.2.1 기독교 역사기록의 기술규칙

1) 기독교 역사기록의 컬렉션 기술의 필요성
 앞장의 분석을 통해 기독교 역사기록 같은 매뉴스크립트 기록은 컬렉션 기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독교 역사기록 관리기관 같이 수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다양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¹⁹⁾ 컬렉션은 주제, 특성, 매체, 기간 등 특정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수집된 기록(정보)들의 인공적인 집합을 말한다(김보인, 2008). 수집방식에 따라 인위적 컬렉션(artificial collection), 조직형 컬렉션(organic collection), 혼합컬렉션(collection of miscellany)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전명혁, 2003). 기독교 역사기록 관리기관은 3가지 컬렉션이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직형 컬렉션은 NCKK와 한국YMCA처럼 한 기관에서 특정 주제와 상관없이 기증되어 소장하고 있는 경우이다. 인위적 컬렉션은 특정주제나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기록을 말하며, 특정 사역자나 선교사 등의 기록의 수집이 이에 해당한다. 혼합형 컬렉션은 조직형과 인위적 컬렉션의 혼합된 성격으로 각 교단의 총회록과 노회록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컬렉션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개별 기록(혹은 도서, 박물관)이기보다 '집합'적인 성격이 가장 큰 특징이다(김보인, 2008). 컬렉션 기술은 가장 광범위한 단계부터 시작하여 집합체의 특성을 기술해 내려가기 때문에 분리된 기록

물 세트 각각에 대해 특성을 기술하는 불필요한 작업을 없애준다는 장점이 있다. 컬렉션을 조직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기록물 기술이 이루어질 때 기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 활용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조혜경, 2008).

그러나 기독교 역사기록 관리기관은 소장기록에 대해 서지정보 수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기록 접근 및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기독교 역사기록 관리기관이 소장 기록물에 대한 컬렉션 계층 기술을 하게 된다면 외부 이용자들의 기록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2) 기독교 역사기록의 기술규칙 개발

기독교 역사기록의 기술방식은 ISAD(G)를 기반으로 하되 기독교 역사기록에 맞추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ISAD(G)와 함께 기독교 역사기록의 특징과 매뉴스크립트 기관인 민주화사료관, 미국 북장로회 아카이브의 기술을 참고하여 <표 7>과 같은 기술규칙을 수립하였다. 컬렉션수준과 시리즈-건계층을 나누어 필수요소 및 선호요소를 구분하였다. 필수요소는 컬렉션 수준의 기술을 할시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술해야 할 요소이고, 선택요소는 기관 및 기록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기술한다. 개발한 기독교 역사기록의 기술규칙은 컬렉션수준의 기술을 기본으로 두고, 각 기관의 형편에 맞게 시리즈-건계층의 식별을 위한 기본적 요소를 ISAD(G)의 필수요소로 구성하였다. 시리즈-건계층의 기술요소는 기존의 관리기관의 서지정보 수준의 기술만으로 충분히 기술가능하다.

19) 비록 기독교 역사기록 관리기관에서 소장된 자료를 컬렉션이라 부르지 않더라도, 성격과 내용적 측면에 유사하기 때문에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이다.

〈표 7〉 기독교 역사기록 컬렉션 기술규칙

	기술요소	컬렉션		시리즈-건
		필수	선택	
식별영역	1) 컬렉션 번호	◎		△
	2) 표제	◎		△
	3) 생산시기/주요생산시기	◎		△
	4) 기술계층	◎		△
	5) 수량	◎		△
	6) 소장 위치	◎		
배경영역	7) 생산자명/기증자명	◎		△
	8) 행정연혁/개인이력	◎		
	9) 수집 정보	◎		
	10) 기록물 이력	◎		
내용과 구조 영역	11) 범위와 내용	◎		
	12) 추가예상 수집기록			△
	13) 정리체계	◎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14) 열람조건			△
	15) 언어와 문자			△
	16) 형태 및 물리적 특성	◎		
	17) 시리즈-건 목록	◎		
관련 자료 영역	18) 색인어	◎		
	19) 관련 자료			△
	20) 관련 소장 기관	◎		
	21) 관련 출판물			△
추가설명 영역	22) 추가설명			△
기술통제 영역	23) 기술 정보	◎		

※ ◎: 필수요소, △: 선택요소

컬렉션 기술은 ISAD(G)의 영역을 토대로 7개 영역 23개 요소로 구성하였다.²⁰⁾

(1) 식별영역

식별영역은 기술단위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필수정보로 컬렉션번호, 표제, 생산시기/주요생산시기, 기술계층, 수량, 소장위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컬렉션번호는 관리기관내에 조직, 주제 등으로 구성된 컬렉션 각각을 구분 짓고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컬렉션 번호는 기존의 기록을 정리하거나 기록물이 인수될 때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것보다 구분해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관리기관에 소장된 기록 및 수집하는 기록을 분류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후 주제별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선정된 주제는 소장기록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분할 수 있는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선교(Korean Mission, KM), 기독교 교단

20) 영구기록물 정리·기술규칙(국가기록원, 2013)과 아카이브즈의 체계화(데이비드 카마이클, 신필립 역, 201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Christian Denomination, CD), 기독교 단체 (Christian Organization, CO)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표제는 구성된 컬렉션의 명칭으로 컬렉션을 대표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컬렉션 생산자/위은이의 이름에 컬렉션의 특성을 설명하는 어구나 단어가 덧붙여진다.

생산시기/주요 생산시기는 건별 생산일이 아닌 컬렉션 내에 포함된 모든 기록의 생산시기 및 주요생산시기를 말한다. 생산시기는 가장 오래된 문서의 날짜를 쓰고 하이픈을 긋고 가장 최근 문서의 날짜를 작성하면 된다(예시, 1902-1987). 컬렉션에 시간적 공백이 있다면 연결되는 날짜는 하이픈을 사용해서 보여주고 공백은 콤마를 사용해 표시한다. 예를 들어 날짜가 '1901-1948, 1966-1986'이라고 적혀있다면 1949년부터 1965년의 기록이 부재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구분해주는 것은 컬렉션 상에서 중요한 공백이 있을 때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교단의 총회록과 노회록 등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기록이 일정기간 동안 없는 경우는 중요한 공백으로 보지만, 주기적이지 않은 편지같은 기록은 공백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생산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략'이나 '약'이라는 한정어를 앞세워 작성한다. 기술계층은 기록을 정리계층을 나타내는 컬렉션, 시리즈, 권 등 현재 취급하고 있는 계층을 표기한다. 수량 및 소장위치는 컬렉션 내에 기록물의 전체 수량이 얼마나 되며,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물리적 단위의 수와 측정단위를 제시하여 기입한다.

(2) 배경영역

배경영역은 기술단위의 출처 및 관리이력에

관한 정보로 생산자명/기증자명, 행정연혁/개인이력, 수집정보, 기록물이력이 포함된다. 컬렉션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 영역에서 기록 관리기관 담당자는 연구자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 누가 이 기록을 생산했거나 위었는가?
(만약 기관이 인위적으로 컬렉션을 만들었다면 배경영역에 그 사실을 적어야 된다.)
- 왜 생산했거나 위었는가?
- 어떻게 이 기록이 기록관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 아카이브즈의 체계화(데이비드 카마이클, 2015) 참고

<그림 3> 배경영역 설명요소

생산자명/기증자명은 기존의 생산자명에 메타스크립트 컬렉션이 수집을 기반으로 구성되기에 기증자의 이름을 추가하였다. 또한 개인이나 기관(=소장자)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다시 수집해 컬렉션으로 구성할 경우 생산자보다 기증자명을 작성한다.

행정연혁/개인이력은 조직형 컬렉션이나 개인 컬렉션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조직·기관 및 개인의 약력과 주요활동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포함된다. 조직·기관에 관한 배경정보는 설립일, 설립목적, 부서와 각 부서의 설립날짜, 기관장들, 기관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 등에 관한 것이다.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짜(출생일, 사망일, 기록생산일 및 수집일 등), 관련 주소들, 직업형태, 관심사와 활동, 협회나 사무실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정보는 기증자 인터뷰나 출간된 역사책, 신문, 전기 사전(Biographical dictionaries)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²¹⁾ 작성된 정보에

대해 출처도 함께 기입한다. 수집정보는 수집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로서 수집번호, 수집일자, 수집구분(기증, 구매, 위탁 등), 수집조건, 계약자, 보상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작성한다. 기록물 이력은 수집한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 소유권 등과 관련된 지금까지 이루어진 활동정보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장자 컬렉션의 경우 소장자가 컬렉션 기록의 수집이유, 수집기간, 정리 상태 등에 대해 작성한다.

(3)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은 기술단위의 주제와 정리에 관한 정보로 기록물 자체에 대한 정보인 범위와 내용과 수집된 기록물의 정리체계를 포함한다. 범위와 내용은 컬렉션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위로 정리된 시리즈관련 정보를 보여준다. 이 항목에는 연구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어떤 활동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 어떤 정보를 기록이 담고 있는지?
(어떤 주제나 사건이 기록에 표현되어있는지를 포함해서)
- 기록에 눈에 띄는 시간적 공백이 있는지, 왜 이 공백이 발생했는지?
- 연구자들이 이 컬렉션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 컬렉션에 포함되지 않은 기록은 무엇인지?

* 아카이브즈의 체계화(데이비드 카마이클, 2015) 참고

<그림 4> 범위와 내용 설명요소

정리체계는 기록의 구조나 질서, 분류된 방식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이를 통해 컬렉션이

어떠한 구조로 정리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한 단어, 가령 '연대순', '알파벳순' 혹은 '숫자순' 등으로 작성한다. 추가예상수집기록은 추후 컬렉션에 추가될 수 있는 기록을 말한다.

(4)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은 기술단위의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로 열람조건, 언어와 문자, 형태 및 물리적 특성, 시리즈-건목록, 색인어로 구성되어 있다. 열람조건은 컬렉션 내의 열람에 관한 정보로 기록 접근에 대한 제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며, 언어와 문자는 기록물의 구성언어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매뉴스크립트의 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 및 물리적 특성을 기술해야 한다. 컬렉션에 포함된 기록의 매체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물리적 특성에 관한 정보이다. 시리즈-건목록은 컬렉션 기술에만 있는 독특한 요소로 컬렉션 내의 하위수준(시리즈-건)의 기록목록을 기재하는 요소이다. 컬렉션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 이 요소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기관의 소장된 기록목록을 쉽게 확인함으로써 기록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색인어는 컬렉션이 검색되게 하는 요소로 컬렉션 내의 사람, 장소, 주제 그리고 형태를 식별하여 색인어를 추출한다. 생산자나 위은이, 컬렉션 내의 주요인사, 주요장소, 주요 주제나 특이한 기록형식, 형태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5) 관련자료 영역

관련자료 영역은 밀접히 관련된 자료에 관한

21) 충분한 배경정보를 찾을 수 있는 컬렉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컬렉션도 있을 것이다.

정보로 관련 자료, 관련 소장기관, 관련 출판물이 있다. 관련 자료는 컬렉션 소장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중 컬렉션과 관련 있는 자료에 관한 것이다. 관련 자료 하위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관련 사건·단체·인물·지역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한다(한규무, 2011). 관련 소장 기관 항목은 컬렉션과 관련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타기관을 소개하는 것이다. 관련 출판물은 컬렉션과 관련하여 출판된 서적이거나 컬렉션 연구시 참고할 서적 등에 관해 기술한다.

(6) 추가설명 영역

추가설명은 어떤 영역에도 기술할 수 없는 특별한 정보를 기술하는 영역으로 기타 요소를 통해 기술하지 못했던 컬렉션에 관한 추가 설

명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다.

(7) 기술정보 영역

기술정보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기술되었는가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추후 업데이트 및 관리를 위해 컬렉션 정보를 기술한 담당자와 기술일자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3 기독교 역사기록 기술규칙 예시안

개발한 기독교 역사기록 기술규칙을 토대로 <표 8>과 같이 예시안을 작성하였다. 예시로 작성한 컬렉션 기술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분류 정리한 NCKK 기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적 내용은 그와 관련된 연구자료(이순자, 2011; 한규무, 2011)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표 8> 기독교 역사기록 컬렉션 기술 예시

기술영역	컬렉션 기술
식별영역	<input type="checkbox"/> 컬렉션 번호: CO 1 <input type="checkbox"/> 표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컬렉션 <input type="checkbox"/> 생산시기/주요생산시기: 대략 1930~1990년대/1970-80년 <input type="checkbox"/> 기술계층: 컬렉션 <input type="checkbox"/> 수량: 177 Box <input type="checkbox"/> 소장위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00에 위치
배경영역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명/기증자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input type="checkbox"/> 행정연혁 1924년 9월 24일 3개의 한국교회(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미감리회, 조선남감리회)와 6개의 외국인교부, 2개의 기독교기관(대영성서공회, 조선기독교청년회)가 참여해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가 창립되었다. 1935년 찬송가 편찬문제와 일제의 어용단체인 '조선기독교연합회'가 결성됨으로 인해 1938년 9월 19일 해산되었다. 해방후 1946년 9월 3일 장로교·감리교·성결교·구세군과 국내의 각 선교부와 교회기관들이 '조선기독교연합회'로 다시 재건하였다. 그 후 1970년 헌장 개정을 통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변경되었다. 한국기독교협의회는 교회들 간의 유대와 연합운동,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및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공동증언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주요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페이지(www.kncc.or.kr) 기관 소개 설명. <input type="checkbox"/> 수집 정보 2007년 11월 22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김홍수 교수와 NCKK 총무인 권오성 총무의 협약하에 177 Box분량의 NCKK문서를 대역형식으로 이전받았다.

기술영역	컬렉션 기술
	<input type="checkbox"/> 기록물 이력 NCKK문서는 NCKK가 소장하고 있던 기록들을 공간과 인력부족으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 보관하고 있었다. NCKK총무에 의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 보관된 기록들을 2007년 11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 이전하였다.
내용과 구조영역	<input type="checkbox"/> 범위와 내용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대량으로 이관받은 NCKK 전체 문서를 재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문서의 주요생산시기인 1970-80년대의 NCKK 조직 및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총 22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NCKK 컬렉션은 교회연합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및 통일운동을 전개해오면서 각종 회의록과 공문, 성명서, 회원교회 및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교회협의회(CCA) 등과 주고받은 서신 등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컬렉션은 총 22개의 시리즈로 분류되어 총177박스가 있다. NCKK총회(20), 해외선교(1), 에큐메니칼위원회(3), 교회연합행사(1), 교회와사회위원회(3), 홍보위원회(2), 재정위원회(3), 선교훈련원(3), 특별위원회(8), 인권위원회(8), 통일위원회(9), WCC(7), CCA(5), 기타회원국가연합(9),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4),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5), 도시산업선교회(1), 기타 국내 유관기관(7), 단행본 및 연간물(3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서적(12), 도시농어촌위원회(7), 기타 및 미디어 자료(24)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유형은 발췌문, 발표문, 보고서, 재판자료, 회의록, 신청서 등 다양한 자료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추가수집 기록: NCKK 관련 기록 <input type="checkbox"/> 정리체계 컬렉션-시리즈-건으로 정리되었다. 시리즈는 NCKK의 조직 및 사업내용별로 하위 시리즈인 각각의 위원회는 자료유형별로 정리되었다. 건은 날짜순으로 정리되었다.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input type="checkbox"/> 열람조건: 공개가 원칙이나 훼손우려가 있는 귀중본의 경우 열람과 복사가 제한됨 <input type="checkbox"/> 언어와 문자: 한글, 한자 <input type="checkbox"/> 형태 및 물리적 특성 각종 서류(보도자료, 메모, 설교문, 영수증, 팸플릿 등), 사진 및 시청각자료, 단행본 및 연간물 등 <input type="checkbox"/> 하위계층 목록 •시리즈 1: 인권위원회 - 인권위 공문(1000-001-002), 1984~1985 - 인수증 및 영수증(1012-001-000-19), 1987~1988 등 •시리즈 2: 통일위원회 •시리즈 3: 교회와사회위원회 등 <input type="checkbox"/> 색인어 NCK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관련 자료 영역	<input type="checkbox"/> 관련 자료 - 관련단체: WCC 관련 자료 • 에큐메니칼 문고(238.01-한155), 1977- • 오늘의에큐메니칼운동: WCC중심으로(238.01-이839), 1977 등 <input type="checkbox"/> 관련 소장기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input type="checkbox"/> 관련 출판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문서 목록집(201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등
추가설명	2007년 수집된 기록물은 2008년 2월 중순부터 정리를 시작해 전체 문서분량 중 약 20%의 문서(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등)를 정리하였으며, 현재까지 정리 작업 중이다.
기술통제 영역	<input type="checkbox"/> 기술정보 2016.06.0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담당자가 작성

이상과 같이 작성한 NCK 컬렉션 기술은 연구소에서 NCK 문서 정리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기술되었다. 다만 하위계층 목록요소에서 기술할 요소가 너무 방대하다면 엑셀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링크로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컬렉션 기술은 기독교 역사기록 관리기관이 이용자의 기록접근과 활용을 돕고, 관리적 측면에서도 소장기록을 컬렉션별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개발된 기독교 역사기록 기술이 각 기관의 컬렉션수준별로 통일되게 기술된다면 향후 하나의 사이트에서 각 기관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검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기독교 기록은 개별교회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 기독교 단체 및 선교사 설립기관, 언론사 등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을 포괄하고 있다.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생산된 기록들은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산재된 기록들을 이용자가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독교 역사기록 기술규칙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독교 관련 연구들과 2가지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기독교 기록의 개념 및 특징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는 개별교회의 행정기록관리에 치중되어 기록의 개념 및 특징역시 교회의 행정적 특징과 관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교회 조직의 비공식적, 비상시적인

특징에 따라 기록역시 비정기적인 생산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역사기록으로서 매뉴스크립트 특징과 기독교 역사기록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기독교 기록의 개념 및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는 추후 기독교 기록의 역사적 측면을 다루고자 하는 연구에서 이론적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기독교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가 희박할 때 기독교 역사기록 특성과 기록 관리기관의 기술규칙에 기반한 기술규칙을 개발하였다는 데 독창성이 있다. 기존의 일부 연구들은 개별교회의 기록관리 측면에서 기술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역사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 건이 아닌 컬렉션 수준의 기술을 제안하여 인력과 재정적으로 열악한 기관들의 현실에 맞는 기술규칙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통합적 관리와 서비스를 위해 유관기관 간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직적,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나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는데 있다. 추가적으로 기록의 정리의 한 측면인 분류적 측면에서 기독교 역사기록의 분류를 다루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예상된다. 또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같은 단일 창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독교 역사기록의 기술규칙이 여러 기독교기록을 소장한 기관에서 사용된다면 추후 하나의 단일한 통로를 통해 통합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화 (2003). 교회 기록관리 현황과 기록관 설치의 방향: 목포의 개신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국가기록원 (2013). 영구기록물 정리·기술 지침. 대전: 국가기록원.
- 김명인 (2015). J교회 기록물 분류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보인 (2008). 컬렉션 계층 기술을 통한 기록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김성겸 (2005). 해외소재 한국관련 역사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김정미 (2005). 교회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신일 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김철성 (2014). 한국개신교 선교역사의 시작은 언제인가?. 한국교회사연구, 38, 181-216.
- 마원준 (2004). 한국 개(個)교회기록물의 기능분류 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민경배 (2008). 한국교회의 사회사(1885-1945).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민주화운동 사료 기술규칙 표준 개발에 관한 연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민주화운동사료목록집 1-4권.
- 송현강 (2006). 대전·충남 지역의 근현대 기독교 기록물 현황과 기록관리 실태. 역사와 담론, 45, 125-162.
- 유영산 (2005). 매뉴스크립트 수집절차 체계화 방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이순자 (20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문서의 구성과 내용.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93, 13-24.
- 장윤금 (2013).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연구(1800-1910). 정보관리학회지, 30(4), 265-281.
- 전명혁 (2003). 매뉴스크립(manuscripts) 기록물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역사연구, 13, 189-204.
- 조혜경 (2008). 일제강점기 해외소재 한국관련 기록의 통합활용에 관한 연구: 컬렉션 기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최유태 (2010). 개신교 교회 기록물관리의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교회 기록물관리 방법론 연구.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한규무 (20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문서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방안.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93, 25-39.

허은정 (2007). 교회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 설립 및 운영방안: N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David W. Carmicheal (2015). 아카이브즈의 체계화. (신필립 역). 서울: 선인. (원전 발행년 199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Yun-Keum (2013). The Needs of Digital Archive Development for the Records of Early Foreign Missionaries in Korea (1800-19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65-281.

Choi, Yu-Taek (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in protestant church's archive manag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Han, Gyu-Mu (2011). The Value of NCKK Document and Its Application Strategies. *Newsletter of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93, 25-39.

Heo, Eun-Jeong (2007).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rchives and its operation for systemat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f church: Focusing on N Chur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Kyungnam, Korea.

Jo, Hye-Kyoung (2008). A Study for Integrated Use of Overseas Record on Korea During the Japanese Rule: Focus on Collection and Descrip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Jun, Myung-Hyuk (2003).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Manuscripts. *Journal of History Study*, 13, 189-204.

Kang, Sun-Hwa (2003). Church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nd How to Establish Church Archives in Mokpo.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University, Mokpo, Korea.

Kim, Bo-In (2008). A study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use by collection level description: Focusing on U.K. Ca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Kim, Chil-Seong (2014). When is the Inception of the Protestant Mission History in Korea?. *Journal of 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 38, 181-216.

Kim, Jeong-Mi (2005).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Church's Records: A Case of the Shinil Chur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Kim, Myeong-In (2015). A Study constructing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for J Chur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Chungnam, Korea.

Kim, Sung-Gyeom (2005). A Study on Technical Management and Retention for Collection of

- Korea Historical Data from International Sour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Korea Democracy Foundation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 for List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
- Korea Democracy Foundation (2002). The List of Korea Democracy Movement Records.
- Lee, Sun-Ja (2011). Organization and Content of the NCKK Document. Newsletter of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93, 13-24.
- Ma, Won-Jun (2004). A Study constructing a Function-Based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for Korean Individual Chur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Min, Gyeong-Bae (2008). Social History of Korean Church (1885-1945). Seoul: Yonsei University Publishing Division.
- NAK (2013). Guidelines for Archives Arrangement & Description. Daejeon: NAK
- Song, Hyeon-Gang (2006). The status of the church archives of Daejeon and Choongnam province concerning its preservation. History and Discourse, 45, 125-162.
- Th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Archives and Records (2004). A Study on Methodology of Records Management for Church. The Research Reports for th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Archives and Records 13.
- Yu, Yung-San (2005).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Manuscript Collecting Process -Focus on Archives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